

‘영암 빈상가’ 신선·새로운 청년의 맛이 채웠다

영암읍 빈상가채움 프로젝트...장산리푸줏간·촌스토랑 ‘인기’ 영암 한우·무화과 소스 결집인 비빔밥부터 토마토 파스타 선봬

영암군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영암읍 빈상가 채움 프로젝트’로 새로운 영암의 맛을 선보여 호평을 얻고 있다.

16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읍에서 음식점 개업 소식이 이어지면서 영암을 찾는 관광객의 먹거리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다.

새로 문을 연 가게 중, 10월 말부터 손님을 받은 두 곳이 눈에 띈다. 영암군의 ‘영암읍 빈상가 채움 프로젝트’ 지원을 받은 청년 식당이다. 청년들은 영암군의 지원에 자신들의 꿈을 더해, ‘신선한 맛’과 ‘새로운 맛’의 세계를 열어나가고 있다.

평일 점심시간, 단아한 실내장식의 ‘장산리푸줏간’에 손님들로 북적인다.

어르신에서 청년까지 다양한 계층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김혜민(36) 장산리푸줏간 대표는 “나와 동생이 영암에서 키우는 소로 한우 물회·구이, 생고기·육회 비빔밥, 차돌 된장찌개, 육개장 등 음식을 만들고, 온라인 한우 유통도 하고 있다”며 “동생이 소를 키우는 곳이 신북면 장산(長山)이어서 가게 이름으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장산리 푸줏간은 김 대표와 동생 김유성(29)씨, 동생 친구 최원석(26)씨의 일터다. 7~8년 전 축산에 전념한 동생이 먼저 귀농했다. 뒤이어 김 대표도 가업을 이어 도포면에서 한우 사육에 뛰어 들었다. 여기에 정육 경력에 있는 최씨가 힘을 보탰다.

김 대표는 판매 중인 비빔밥의 비결



영암군이 추진한 영암읍 빈상가 채움 프로젝트로 창업을 한 장산리푸줏간과 촌스토랑이 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해 영암의 맛을 담은 메뉴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효임 촌스토랑 대표와 촌스토랑 인기 메뉴, 장산리푸줏간을 운영하고 있는 최원석, 김유성, 김혜민씨와 장산리푸줏간 한상차림. <영암군 제공>



영암군이 추진한 영암읍 빈상가 채움 프로젝트로 창업을 한 장산리푸줏간과 촌스토랑이 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해 영암의 맛을 담은 메뉴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효임 촌스토랑 대표와 촌스토랑 인기 메뉴, 장산리푸줏간을 운영하고 있는 최원석, 김유성, 김혜민씨와 장산리푸줏간 한상차림. <영암군 제공>

로 영암 무화과를 갈아 넣어 만든 양념장을 곁들였다. 한우와 무화과 소스 이외에도 쌀·배추·양파·상추·고추까지 영암의 재료들을 사용한다. 가게 추천 메뉴인 한우 물회에도 이 소스가 들어간다. 앞으로 출시할 제육볶음과 떡볶이 불고기도 기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년 창업 가게인 촌스토랑도 맛집 대열에 합류해 방문객들의 발

걸이 이어지고 있다.

영암이 고향인 김효임(39) 촌스토랑 대표는 “8년째 서호면 남하동마을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다 단순하게 재배·판매하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집에서 요리에 써봤더니 너무 맛있어 레스토랑을 차려 좋은 토마토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창업 배경을 소개했다.

그는 “샐러드, 스테이크, 파스타 네 종류, 장조림 닭발 등을 판다. 샐러드와 해물토마토파스타에 들어간 토마토는 직접 재배한 것”이라며 “토마토·크림·장조림 소스에 단호박 스프까지 직접 만든다 보니 브레이크 타임에도 설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ભ용이 많이 나는 계절에는 샐러드나 피자, 디저트에 넣어 개발 중이다. 추

후에는 멜론이나 고구마도 활용한 메뉴를 기획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영암의 로컬푸드에 양식을 내놓는 레스토랑이 꿈”이라며 “지역에 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며 영암 특산물로 차린 맛으로 자리 잡아 청년들과 함께하는 일자리로 키워가는 게 또 하나의 바람”이라고 웃었다.

/영암=나동호 기자

무안군, 내년도 국·도비 5천183억 확보...올해비 5.7% ↑

호남고속철도·무안국제공항 등 SOC·신규 사업 대거 반영

무안군이 2025년 국·도비 예산 5천183억원을 확보하며,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마련했다.

이는 올해보다 5.7% 증가한 281억원의 증액된 규모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도 이뤄낸 성과다.

16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공무원들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전담도와 관계 부처를 방문하며 지

역구 서삼석 국회의원과 협력해 이뤘다.

무안군이 확보한 주요 SOC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2천692억원(총사업비 2조6천921억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106억원(총사업비 492억원) ▲영산강IV지구 대단위 농업 개발 사업 265억원(총사업비 9천608억원) ▲무안 환경-해체 국도건설 59억원(총사업비 439억원) ▲무안 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13억원(총사업비 200억원) 등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도리포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20억원(총사업비 1천745억원)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12억원(총사업비 30억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총사업비 58억원) ▲목재오션타워 조성사업 2억원(총사업비 130억원)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5억원(총사업비 42억원) 등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으로는 ▲무안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2억원(총사업비 497억원) ▲삼향 및 청계농공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113억원(총사업비 188억원) ▲망

운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41억원(총사업비 102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송산마을) 16억원(총사업비 28억원) ▲남악기후대응도시숲조성 사업 15억원(총사업비 50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도비가 반영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확보된 국·도비 예산은 무안이 한 단계 더 도약할 동력이 될 것”이라며 “현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신안군, ‘1섬1카페’ 주민 휴식 공간 자리매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공공 유휴공간 활용...지역 활력 증진

신안군이 1섬1뮤지엄, 1섬1정원에 이어 1섬1카페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성된 카페는 1004가게 중도점, 안좌점, 장산점(여객선터미널), 압해점(신안군청, 가족센터), 도초점(수국공원), 하의점(여객선터미널·사진)으로 6개 섬에 7개소를 개점했다.

신안군은 올해 18억원을 투입해 자활 사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카페가 없는 읍·면에도 중앙 및 군 자활기금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카페를 확충할 계획이다. 카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문화와 휴식 공간

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15명의 주민이 카페 종사자로 고용돼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는 국비로 운영되고 있다. 각 카페는 월평균 약 6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자활사업 활성화가 지역 경제와 주민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문화와 쉼터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안좌점 카페(퍼플섬 행복한 카페)가 꼽힌다. 2022년 자활참여자가 자활기금으로 창업에 성공하며, 지역 주민들의 활력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신안=양홍기 기자

목포시, 道지역경제활성화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상금 1천350만원...민생경제 회복 노력 인정

목포시는 16일 “지난 13일 전남도가 주관한 지역경제활성화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시상금 1천35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전남동부청사 이순신 강당에서 열린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서 진행됐다.

전남도는 올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수 경제정책 발굴과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를 평가했다.

평가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실적 ▲물가모니터단 운영 실적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 ▲물가안정 대책 ▲공공·상생배달앱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실적 ▲전통시장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례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목포시는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시가 전남도 주관의 지역경제활성화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가운데 박홍문 목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영광군, 내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참여 단체 모집

내달 7일까지...5인 이상 주민·단체 대상

영광군은 16일 “내년 1월7일까지 2025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다양화하고 마을 돌봄 문화를 형성할 계획이 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가며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영광군에 거주하는 5명 이상의 주민 모임·단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씨앗 단계(소규모 공동체형), 새싹 단계(씨앗 단계 완료 공동체), 열매 단계(새싹 단계 완료 공동체)와 돌봄 공동체이며 공동체 활동에 대한 재료비, 강사료, 홍보비, 공동체 시설개선 비용 등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사전컨설팅을 거친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누리집 또는 일자리경제과(061-350-4694), 영광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061-351-8772)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동규 기자

강진군 옛 성화대 부지, 휴식·힐링공간 ‘탈바꿈’

풍욕장·놀이시설 등 복합공간 조성...내년 사업 착수

강진군 옛 성화대 부지가 산림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휴식·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옛 성화대 일원인 성전면 월평리 산22번지 1ha가 산림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오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도비를 포함한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2년에 걸쳐 투입된다.

강진군은 옛 성화대 부지의 활성화를 위해 인근 산지와 연계한 사업을 모색한 결과 산림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올해 확정했고, 2025년 도시숲인 산림공원 사

업에 선정돼 올해 총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 1월 중 실시시설개요역을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이후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방치된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 주민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의 우수한 입상을 보존하면서 방문객들의 휴식과 체험 공간으로 풍욕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설치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설계된다. /강진=정영록 기자

해남 ‘고품질 조사료 공급’ 섬유질 사료공장 준공

일 150t 생산...조사료 자급률 ↑·사료값 안정화 기대

해남군 북평리에 해남진도축협 섬유질 사료공장이 준공됐다. <사진>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사료공장은 지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공모사업에 선정, 총사업비 89억2천900만원(자부담 70억2천900만원, 기금·군비 18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3천928㎡ 규모로 건립됐다.

섬유질 사료공장은 관내 조사료를 활용해 양질의 혼합사료를 하루 150t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해남군과 해남진도축협이 육성 중인 ‘해남땅끝한우’ 브랜드의 전용사료 등 고품질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한우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해남한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국내산 조사료를 안전한 축산물 생산의 중요한 기반으로 보고 있으며, 약 5천ha에 달하는 전남 최대 면적의 조사료 재배지를 보유하고 있



다. 이를 위해 매년 60여억원을 투입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며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신축된 섬유질 사료공장이 지역 축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안정적인 조사료 수급 체계를 유지하고, 사료값을 안정시켜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